

# 단기 파상공세후 종전 선포선언?...트럼프 출구전략 될까

백악관 “트럼프가 ‘군사목표 완전 달성’ 판단시 작전 종료”

백악관이 10일(현지시간) 대이란 군사작전 종료 시점을 “작전 목표가 완전히 달성됐다고 대통령이 판단할 때”라고 밝히면서 미국이 일정 수준의 군사적 성과를 확보한 뒤 ‘승리’를 선언하며 작전을 마무리하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군사작전 종료 기준을 교전 상대국과의 합의 또는 교전 상대국의 명시적 항복 선언이 아니라, 대통령의 판단에 맡기면서 상황에 따라 작전 종료 시점을 유연하게 설정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궁극적으로 작전은 최고사령관(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목표가 완전히 달성되었다고 판단할 때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란의 항복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레빗 대변인은 설명했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과 미군의 초기 작전 타임라인은 약 4-6주 내에 작전의 완전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었다”며 “미군과 용감한 전사들이 목표들을 예정보다 훨씬 빠르게,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미국의 군사작전 목표가 ▲이란의 미사일 및 미사일 생산 능력 파괴 ▲해군의 무력화 ▲핵무기 보유 영구적 차단 ▲역내 이란 대리세력 약화라고 다시 한번 열거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목표들이 신속히 달성될 것임을 여전히 자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작전의 목표가 이란의 군사능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의

미로 풀이된다.

실제로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이 의미하는 바는, 이란의 위협이 더 이상 그들 나라에서 핵폭탄 제조를 보호해주는 탄도 미사일 전력으로 뒷받침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며 “뒤틀림행동이 없다면 공허한 위협일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사망 이후 그의 차남 모흐타바가 이끄는 새 지도부가 강경 노선을 이어가더라도 미사일 전력 등이 크게 약화해 미국과 동맹국을 직접 위협할 능력이 사실상 상실됐다고 판단될 경우 작전 종료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대이란 군사작전이 “곧 끝날 것”이라고 밝힌 것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란전이 장기화할 경우 유가 상승과 미군 사상자 증가 등이 겹치며 국내외 비판 여론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전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부담이다.

공식 발표된 이란 작전 관련 미군 사망자는 이날 현재까지 7명인데, 전체 부상자 수가 약 140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언론보도에 대한 미 국방부(전쟁부)와 백악관의 확인을 통해 처음 알려지기도 했다.

미 온라인매체 약시오스는 이란 종전을 위한 시나리오 중 하나로 ‘트럼프의 승리 선언과 철수가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능력이 충분히 약화했다고 판단하고, 이란의 근본적 정치 상황이 해결됐는지와 상관없이 승리를 선언하고 철수할 수 있다”고 보도



이스라엘 공습 현장 11일(현지시간) 새벽까지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을 겨냥한 이스라엘 공습 현장에서 화염이 치솟고 있다. /AFP=연합뉴스

했다. 약시오스는 아울러 이란 정권과 핵 프로그램 관련 합의와 함께, 후전에 합의하는 방안도 시나리오의 하나로 거론했다.

그러나 미국이 일반적으로 승리를 선언하더라도 실제 상황이 곧바로 안정 국면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란의 새 지도부가 강경 노선을 이어가며 미국의 전쟁 종료 선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호르

무즈 해협의 실질적 봉쇄를 이어가고, 중동내 미군기지 등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는 한편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군사적 긴장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함께 이란을 공격 중인 이스라엘의 입장도 변수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더 많은 놀랄 일이 있을 것”이라며 이란 전쟁 지속 의지를 밝히며 미국과 미묘한 온도 차를 드러

내고 있다. 이란의 군사적 능력 약화에 더 집중하는 미국과 달리 이스라엘은 이란의 성직자 정권을 영구적으로 약화시킬 원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적 성과를 근거로 조기 종전을 선언할지, 아니면 이란과 이스라엘의 대응을 고려해 군사 압박을 이어갈지가 향후 중동 정세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 국제유가, 전쟁 조기종식 기대 급락세...80달러대로

이란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 여파로 10일(현지시간) 국제유가가 급락세를 이어갔다.

전날 장중 배럴당 100달러선을 돌파했던 국제유가는 불과 하루 새 배럴당 80달러대 초중반으로 떨어졌다.

이날 ICE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미 동부시간으로 오후 2시13분 전장 대비 13% 급락한 배럴당 85.67달러에 거래됐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WTI 선물은 전장보다 14% 급락한 81.16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선물은 전날 아시아 시장에서 배럴당 119달러까지 올랐다가 같은 날 장중 배럴당 84달러까지 급락하며, 일간 기준 사상 최대 변동폭을 기록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전쟁이 마무리 수준”이라고 선언한 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공유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게 전쟁 조기 종식에 대한 낙관론을 키웠다.

주요 7개국(G7)이 전략 비축유를 방출할 것이라던 기대도 유가 하락세 지속에 힘을 보탤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 석유 시장 상황을 평가하고자 이날 오후 늦게 회원국 정부 간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국제 유가 급등 상황과 관련해 전날 G7 재무장관들이 머리를 맞댄 데 이어 후속 회의이다.

파티 비물 IEA 사무총장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IEA 회원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연합뉴스

## 흔들리는 NASA 달착륙...“스페이스X 우주선 개발 지연”

약 반세기 만에 인류가 달을 다시 밟겠다며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추진 중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달 착륙선 개발 지연에 발목이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NASA 감사관실(OIG)은 10일(현지시간) ‘NASA의 유인 착륙 시스템 계약 관리’ 보고서를 통해 “달 착륙선 개발에 어려움이 있어 계획한 아르테미스 임무 날짜들이 지연됐다”며 “스페이스X의 착륙선은 2027년 6월까지도 준비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2021년 7월 NASA와의 계약을 통해 제공하기로 한 ‘아르테미스 III’ 우주선 개발이 최소 2년간 지연됐으며, 추가 지연도 예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2023년 15개월 인도 연기를 요청했고, 2024년 12월 NASA가

아르테미스 발사 날짜를 2027년 6월 이후로 미루겠다고 발표하면서 9개월의 여유 기간을 더 갖게 됐다.

하지만, 당초 지난해 3월 진행하기로 했던 우주선 간 극저온 추진제 이동 시험이 1년 가량 밀리면서 2027년 6월이라는 인도 기한을 지키기 어려워진 것으로 감사관실을 내다봤다.

스페이스X의 ‘아르테미스 IV’ 우주선 역시 개발이 이미 6개월 지연됐고, 예비설계 검토와 상세 설계 검토 계획은 1년씩 밀렸다.

아마존의 블루오리진이 맡기로 한 ‘아르테미스 V’ 우주선 개발도 2028년 4월에서 12월로 최소 8개월 밀렸다.

로이터통신은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진의 달 착륙선 개발 작업이 NASA의 달 착륙 목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르테미스’는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50여년 만에 다시 달에 인간 우주비행사를 보내기 위해 NASA가 추진 중인 핵심 임무다. /연합뉴스

## 아카데미 시상식에 ‘골든’ 울려 퍼진다

넷플릭스 최대 흥행작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의 주제곡 ‘골든’이 영화계 최고 권위 시상식인 아카데미에서 울려 퍼진다.

아카데미 시상식을 주최하는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는 10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헌터스(케데헌) 속 걸그룹)의 보컬을 맡은 이세, 오드리 누나, 레이아미가 제98회 오스카 시상식 무대에서 ‘골든’을 부른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15일 로스앤젤레스(LA) 할리우드 돌비 극장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철거 전문가**  
광주·전남 전지역 가능

- ✓ 철거 경력 20년!
- ✓ 광주·전남 전 지역 출장 가능
- ✓ 상가, 주택, 간판, 내부 철거 등
- ✓ 당일 견적 OK / 소규모 철거도 가능
- ✓ 안전·정리+깔끔함까지 책임집니다.

현주 제로레벨      ☎ 상담전화 010.9842.5570